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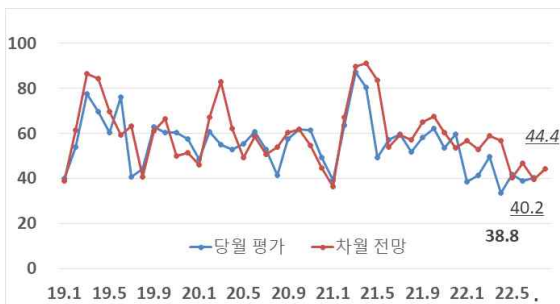
I. 2022년 7월 건설경기평가 및 8월 전망

■ 7월의 경기평가는 전월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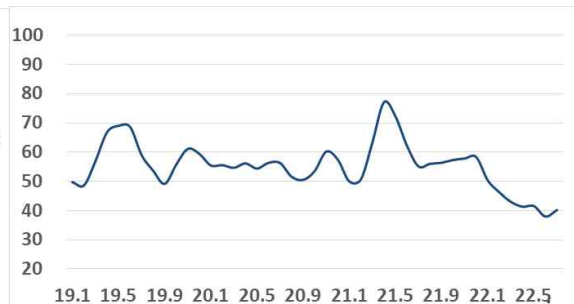
- 7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0.2로 전월(38.8)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1.4p). 차월인 8월의 전망치(44.4)는 일부 개선의 여지가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응답업체들의 경영 애로사항도 공사수주, 자재가격 상승, 인건비 문제, 장마 등 계절적 요인 등이 지적되었으며 일부 자재에 따라서는 가격 문제가 누그러졌다는 응답은 업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수도권은 37.0(30.2→37.0)로 소폭 개선(+6.8p), 지방은 41.3(41.7→41.3)으로 집계됨(-0.4p).

〈표-1〉 2022년 7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8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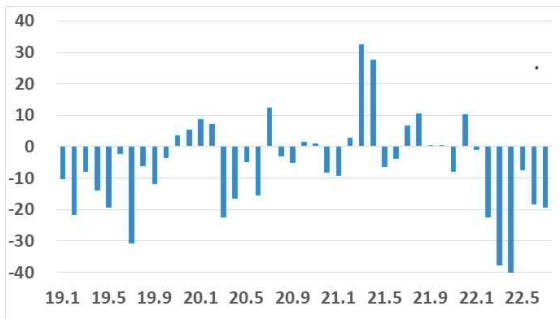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2년 7월 평가	40.2	59.5	37.0	41.3	39.3	36.6
2022년 8월 전망	44.4	57.1	37.0	46.9	35.7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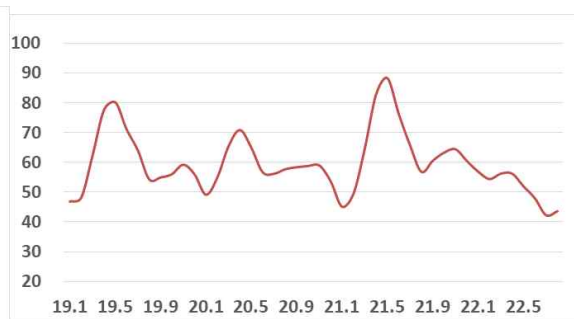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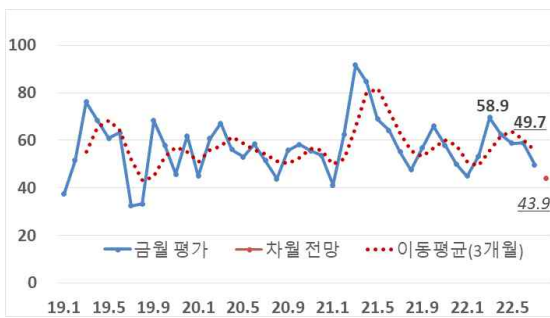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3개월째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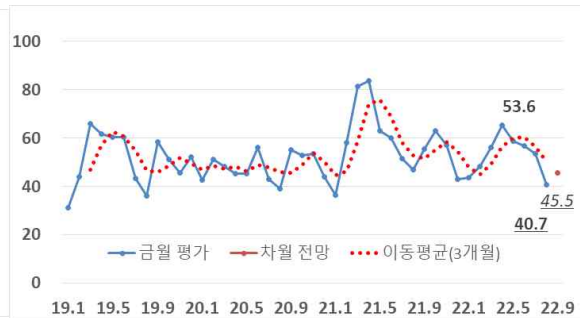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9.7(58.9→49.7)로 3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으며(-9.2p), 하도급수주도 43.9(54.5→43.9)로 동일한 하락추세를 보였음(-10.6p).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2.5→45.7)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악화(-16.8p), 지방(57.7→51.0)도 전월에 이어 하락함(-6.7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2.3→40.7)에서의 하락폭이 매우 컸으며(-21.6p), 지방(50.6→39.2)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11.4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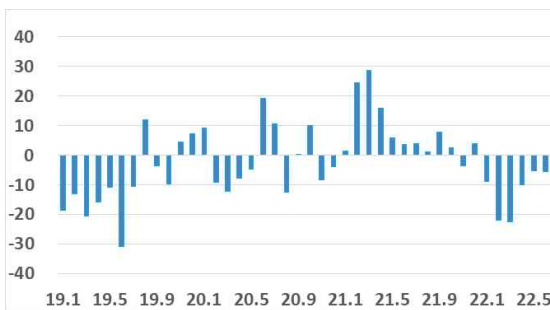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2년 7월 평가	49.7	55.2	45.7	51.0	46.4	59.2
	2022년 8월 전망	43.9	47.9	47.8	42.7	57.1	56.3
하도급 수주	2022년 7월 평가	40.7	51.5	45.7	39.2	39.3	46.5
	2022년 8월 전망	45.5	47.2	54.3	42.7	53.6	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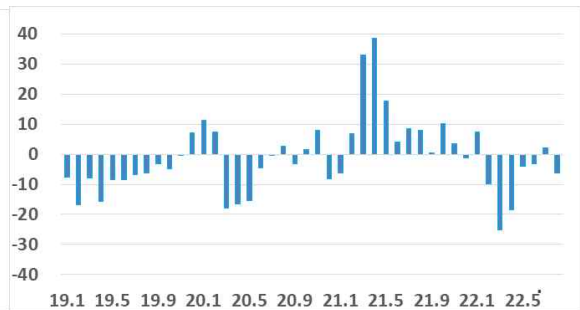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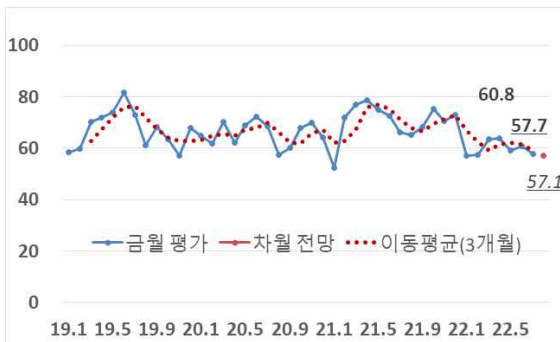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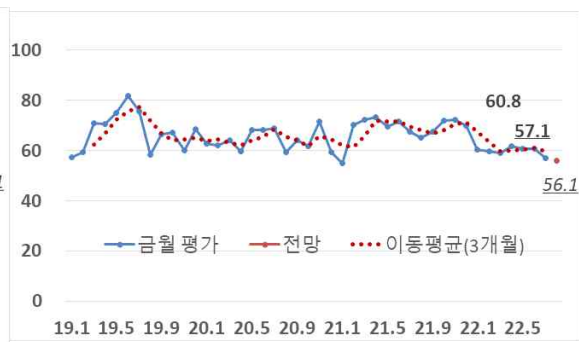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7.7(60.8→57.7)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는데(-3.1p), 이는 전년 동월(66.3)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54.7→54.3)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했으며(-0.4p), 지방(62.8→58.7)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4.1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7.1(60.8→57.1)로 전월과 소폭의 차이를 보였으며(-3.7p), 전년 동월(61.5)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60.4→52.2)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8.2p), 지방(60.9→58.7)은 전월과 소폭의 차이만을 보였음(-2.2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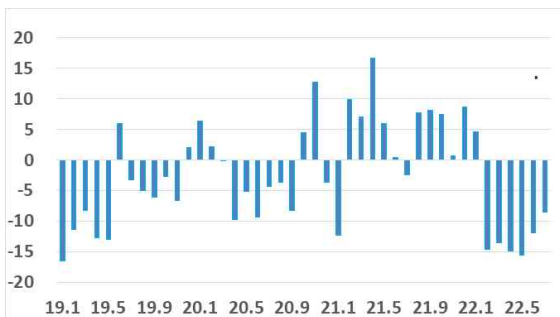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2년 7월 평가	57.7	66.3	54.3	58.7	53.6	59.2
	2022년 8월 전망	57.1	66.9	56.5	57.3	57.1	60.6
자금조달	2022년 7월 평가	57.1	67.5	52.2	58.7	53.6	63.4
	2022년 8월 전망	56.1	66.3	52.2	57.3	57.1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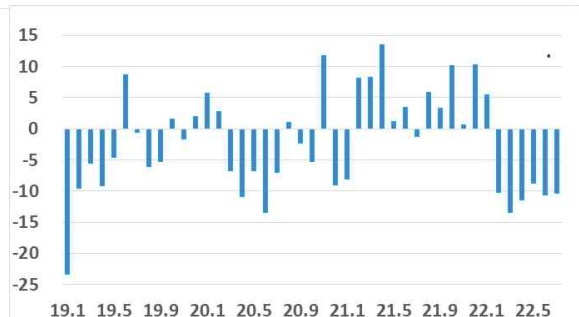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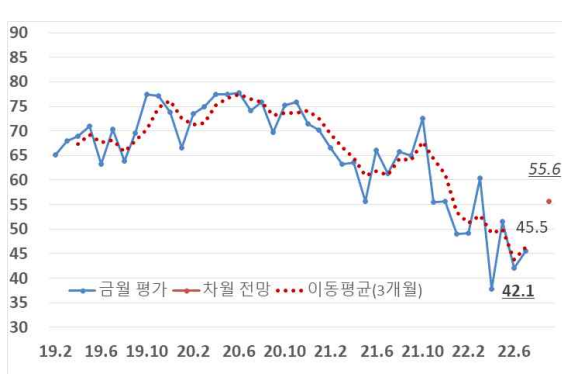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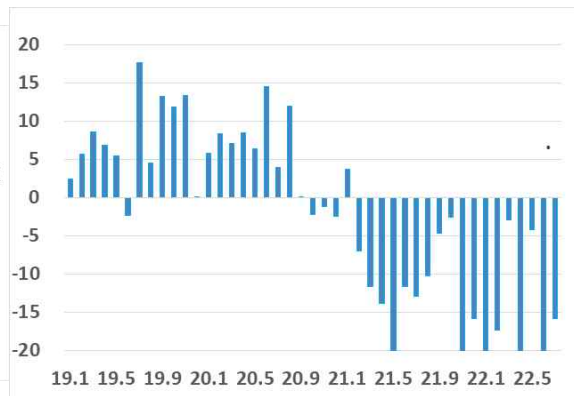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45.5(42.1→45.5)로 소폭 개선되었지만(+3.4p) 여전히 전년 동월(61.3)과는 큰 격차를 보인 상황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39.6→39.1)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0.4p), 지방(42.9→47.6)도 소폭의 개선세를 나타냄(+4.7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도 55.6(57.4→55.6)로서 전월의 수준을 유지했지만(-1.8p), 전년 동월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54.7→58.7)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된 반면(+4.0p), 지방(58.3→54.5)은 수도권과 유사한 크기의 하락폭을 보였음(-3.8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2년 7월 평가	45.5	61.3	39.1	47.6	46.4	47.9
	2022년 8월 전망	55.6	65.0	52.2	56.6	53.6	62.0
인력수급	2022년 7월 평가	55.6	68.1	58.7	54.5	60.7	57.7
	2022년 8월 전망	62.4	73.0	60.9	62.9	64.3	69.0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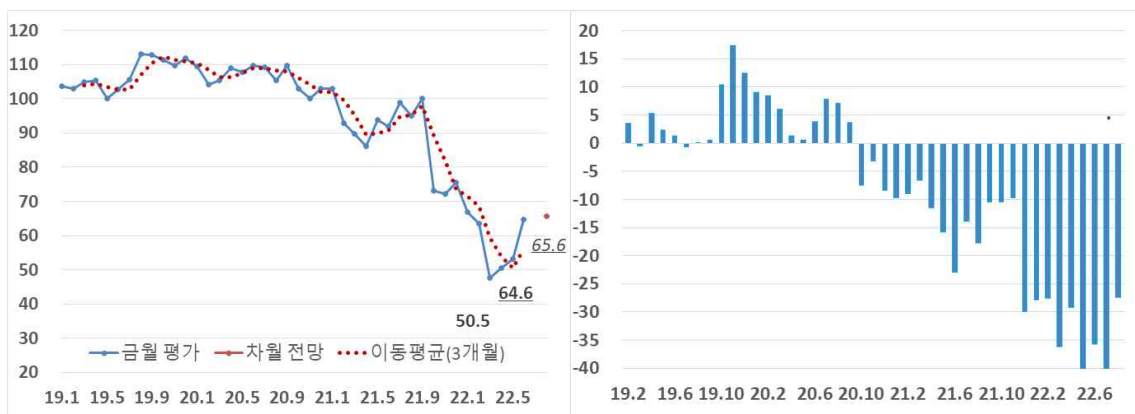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는 개선세 유지, 전년 동월과의 차이는 현격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33.3(24.9→33.3)로 전월에 이어 개선세를 보였으며(+8.4p). 다음 8월(40.7)에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철근같은 일부 자재의 경우에는 가격하락세를 보이면서 업계의 부담을 덜어졌지만 유사한 철강재인 형강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식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비부담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32.1→39.1)에서 개선 (+7.0p), 지방(22.4→31.5)도 꾸준한 개선세를 유지했지만 (+9.1p) 전년 동월과의 지수차이가 현격한 상황임.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64.6(53.1→64.6)로 전월보다 크게 개선되었지만(+11.5p), 여전히 자재수급지수가 100이하로 떨어진 것은 물론 전년 동월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62.3→73.9)에서는 큰 폭의 개선이 조사되었으며(+11.6p), 지방(50.0→61.5)은 수도권과 유사한 정도로 상승함(+11.5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2년 7월 평가	33.3	68.7	39.1	31.5	39.3	36.6
	2022년 8월 전망	40.7	71.8	45.7	39.2	42.9	49.3
자재수급	2022년 7월 평가	64.6	92.0	73.9	61.5	71.4	70.4
	2022년 8월 전망	65.6	87.7	71.7	63.6	75.0	66.2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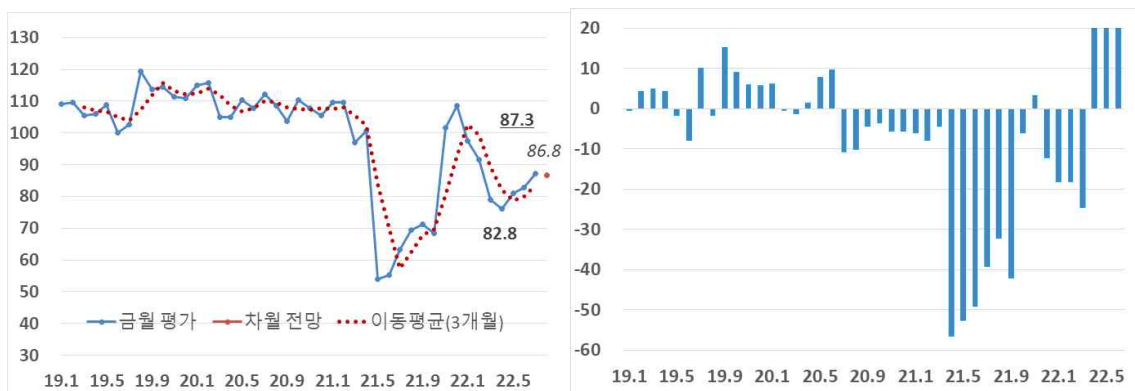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소폭 개선, 업황개선으로 판단하기는 무리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2.9(45.5→52.9)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7.4p), 차월(58.7)에도 꾸준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5.8p). 그렇지만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에서 건설장비의 임대료 문제에 긍정적인 요인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45.3→56.5)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11.2p), 지방(45.5→51.7)에서도 전월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6.2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도 87.3(82.8→87.3)으로 소폭 개선되었지만(+4.5p), 건설장비의 수급지수가 통상적으로는 100이하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84.9→84.8)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했으며(-0.1p), 지방(82.1→88.1)에서는 소폭의 개선세가 나타남(+6.0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2년 7월 평가	52.9	35.6	56.5	51.7	57.1	56.3
	2022년 8월 전망	58.7	46.0	63.0	57.3	57.1	66.2
장비수급	2022년 7월 평가	87.3	63.2	84.8	88.1	82.1	91.5
	2022년 8월 전망	86.8	69.3	89.1	86.0	82.1	94.4



〈건설장비수급〉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2년 7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0.2	59.5	37.0	41.3	39.3	36.6	
	차월 전망	44.4	57.1	37.0	46.9	35.7	54.9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9.7	55.2	45.7	51.0	46.4	59.2
		차월 전망	43.9	47.9	47.8	42.7	57.1	56.3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0.7	51.5	45.7	39.2	39.3	46.5
		차월 전망	45.5	47.2	54.3	42.7	53.6	59.2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급	금월 평가	57.7	66.3	54.3	58.7	53.6	59.2
		차월 전망	57.1	66.9	56.5	57.3	57.1	60.6
	자금조달	금월 평가	57.1	67.5	52.2	58.7	53.6	63.4
		차월 전망	56.1	66.3	52.2	57.3	57.1	62.0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45.5	61.3	39.1	47.6	46.4	47.9
		차월 전망	55.6	65.0	52.2	56.6	53.6	62.0
	인력수급	금월 평가	55.6	68.1	58.7	54.5	60.7	57.7
		차월 전망	62.4	73.0	60.9	62.9	64.3	69.0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33.3	68.7	39.1	31.5	39.3	36.6
		차월 전망	40.7	71.8	45.7	39.2	42.9	49.3
	자재수급	금월 평가	64.6	92.0	73.9	61.5	71.4	70.4
		차월 전망	65.6	87.7	71.7	63.6	75.0	66.2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52.9	35.6	56.5	51.7	57.1	56.3
		차월 전망	58.7	46.0	63.0	57.3	57.1	66.2
	장비수급	금월 평가	87.3	63.2	84.8	88.1	82.1	91.5
		차월 전망	86.8	69.3	89.1	86.0	82.1	94.4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